

서울신문

21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SK, 4번 트로피 들어올렸던 '왕조'

입력 : 2021-01-25 21:16 | 수정 : 2021-01-26 01:43



▲ SK 와이번스는 2018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신문 DB

프로야구 SK와이번스는 21세기 명문 구단이다. 깃발을 올린 2000년부터 지금까지 SK는 통산 4회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SK보다 정상을 많이 정복한 구단은 삼성 라이온즈(7회)밖에 없다.

● 인천에 연고... 김성근 체제서 최강팀 도약

SK는 쌍방울 레이더스를 인수해 KBO리그에 합류했고 수원으로 옮겨간 현대 유니콘스의 뒤를 이어 인천을 연고로 뒀다.

SK는 제2대 조범현 감독 체제에서 강팀으로 도약한다. 창단 4년 만인 2003년 처음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그해 한국시리즈 주우승을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SK가 최강팀으로 우뚝 선 건 '야신' 김

성근 감독을 제3대 사령탑으로 영입한 2007년부터다. 최정, 정근우, 김강민, 박경완 등 공수 최고의 실력을 갖춘 야수진에 정대현, 정우람 등 탄탄한 불펜진, 그리고 고졸 신인으로 데뷔해 포스트 시즌에 맹활약하며 에이스로 등극한 김광현까지 탄탄한 전력을 구축해 2007년과 2008년 통합 우승을 차지한 뒤 2010년 다시 통합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왕조'를 구축했다.

● '스포테인먼트' 도입해 팬 친화적 구단 호평

제4대 이만수 감독 체제에서도 2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며 성과를 냈던 SK는 2017년 창단 처음으로 외국인 지도자 트레이 힐만 감독을 영입해 이듬해 네 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SK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인 '스포테인먼트'(Sportainment)라는 개념을 도입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등 팬 친화적인 구단 운영으로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김광현이 미국 메이저리그로 떠난 지난해 9위에 그치며 창단 이후 최악의 성적을 냈다. 올해 절치부심하며 명예회복을 벌렸지만 시즌 개막도 전에 매각이라는 메가톤급 충격파에 휩쓸리게 됐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